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BBB-'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보도됨. 나이스신용평가는 대우조선해양이 양호한 영업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향후 현대중공업계열 편입 및 추가 유상증자 고려 시 사업적, 재무적 역량 제고가 예상된다고 평가 배경을 설명함. (선박뉴스)

BHP, LNG추진선 발주 척 수 축소

BHP가 208,000DWT급 LNG추진 뉴캐슬맥스 벌크선 발주 척 수를 14척에서 5척으로 줄였다고 보도됨. 지난해 15척을 발주하기 위해 입찰을 개시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발주 척 수를 줄이고 용선 기간도 당초의 15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됨. 선가는 척당 6,800~6,90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테이너선사들의 위기 관리 능력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Global 컨테이너선사들이 도합 9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한다고 전망함. 4년 전 한진해운 사건 이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됐고, 덴마크 등 일부 해외국가들이 부당경쟁이라고 비난을 하였지만 COVID-19사태 이후 각 국의 재정적인 지원은 더욱 확대되면서 컨테이너선사들이 현재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지주, 강제상환 옵션 사모채 발행

현대중공업지주가 강제상환 옵션을 내걸고 사모채 3년물 4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고 보도됨. 지난해 6월 1,500억원 이후 약 1년만이라고 보도됨. 이번 사모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용등급(A-)보다 두 단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강제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부여됐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현대일렉트릭, 4백억 규모 자회사 채무보증

현대일렉트릭은 자회사인 알라바마법인이 산업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빌린 원금 335억원에 대해 402억원 가량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함. 채무보증 금액은 자기자본(7,002억원) 대비 5.7% 수준이며, 보증 기간은 2021년 6월 25일까지라고 알려짐. (이데일리)

두산인프라코어, 5월 中 건설기계 시장서 해외업체 MS 1위 달성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지 밀착형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현지 진출 해외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중국 시장에서 총 2,166대(+99% YoY)의 굴착기를 판매했다고 보도됨. (이데일리)